

#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 태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유혜영<sup>1</sup>, 백진아<sup>2\*</sup>

<sup>1</sup>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 박사과정, <sup>2</sup>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The Effect of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on Depression of Multicultural Adolscent: Mediating Effect of Social Withdrawal

Hye-Young Yu<sup>1</sup>, Jina Paik<sup>2\*</sup>

<sup>1</sup>Student,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Hansei University

<sup>2</sup>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Hanse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그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다문화패널(MAPS) 8차년도(2018)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1,158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Process Macro Model과 Bootstrapping 등의 분석방법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긍정적인 이중문화수용태도는 사회적 위축과 우울감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위축은 우울감을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중문화수용태도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은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문화청소년의 우울을 낮추고 사회적 위축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 다문화청소년, 이중문화수용태도, 우울, 사회적 위축, 매개효과

**Abstract** The study aims to explain the effect of bicultural acceptance on depress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and to analyze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withdrawal between two variables. To accomplish the purpose, 1,158 subjects were selected from the 8th(2018) data of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MAPS), and the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by using Process Macro Model and Bootstrapping analysi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ositive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was shown to decrease their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 Second, social withdrawal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affected increase of their depression. Third, the effect of bicultural acceptance on depress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was partly mediated by their social withdrawal. Based on the above findings, practical alternatives and programs to reduce dep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were suggested.

**Key Words** : Multicultural adolescent,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Depression, Social withdrawal, Mediating effect

### 1. 서론

다문화가족의 확대는 21세기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가족 변화 중의 하나이다. 오랫동안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단일민족 중심에서 벗어나 1990년대 후반 결혼이주여성의 증가와 함께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증가

로 이어지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2022년 청소년 통계조사'에 의하면 청소년의 전체 인구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데 반해, 2021년 다문화 학생수는 16만 58명으로 2020년(14만 7378명)보다 8.6% 증가하였고, 이 중 중·고등학생은 4만 8258명을 차지하고 있다[1]. 다문화청소년이 증가하면

\*Corresponding Author : Jina Paik(jpaik1@hanafos.com)

Received August 16, 2022

Accepted October 20, 2022

Revised September 8, 2022

Published October 28, 2022

서 이들이 경험하는 심리·정서적인 어려움, 사회문화적 부적응에 따른 불안 등의 문제도 심각한 수준으로 노출되고 있다. 생애주기에 따른 발달과업을 제대로 수행하면서 자아정체성도 확립하고 미래사회 성원으로서의 준비도 고민해야 하는 불안정성은 청소년기의 보편적인 특징 중의 하나이지만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한국에 거주하는 '주변인'으로서의 위치와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한 갈등까지 겹쳐 정신건강을 위협받는 정도에까지 이르고 있다. 실제 다문화청소년의 정서적 긴장과 갈등의 문제는 우울의 심각성으로 이어져 일탈행동이나 학업중단, 자해 등의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청소년기의 우울이나 정서적 고통은 단지 특정 시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성인기의 삶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부담과 통합의 어려움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우울은 인간이 경험하는 일반적인 정서 경험의 하나로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가벼운 정도의 슬픈 감정이나 무기력함부터 심각한 정신적인 병리상태까지 매우 다양하게 설명된다[2]. 다문화청소년은 서로 다른 문화가 결합된 가족이라는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정체성 혼란을 겪게 되고 신체적, 언어적 차이로 인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따돌림, 폭력 등의 불편한 경험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특히 또래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성장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학업 부진, 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우울과 불안 등의 문제를 비다문화청소년보다 더 심각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3,4].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의 서로 다른 이중문화에 대한 적응과정의 어려움과 환경적 요인으로 정체성 위기와 사회부적응을 경험하고 이는 정서적 혼란과 우울을 결과하게 된다[3].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면서도 온전하게 학교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적 약자에 위치하고 있는 다문화청소년의 우울 경험은 심리·정서적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극단적 선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관심과 지원제도의 마련이 시급히 요청된다[5].

다문화청소년의 우울을 유발하는 요인은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이중문화수용태도를 고려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자녀는 한국문화와 어머니 나라의 문화적 이질성 및 상이한 규범에 따른 사회적인 정체성 혼란과 가치관의 충돌을 경험함으로써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다. 언어습득의 어려움과

학습부진, 또래집단 내에서의 따돌림과 고립, 학교생활 부적응, 대인관계의 미숙함 역시 다문화 청소년이 당면하고 있는 피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다[6].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의 우울과 관련하여 여러 영향요인들을 확인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중문화수용태도는 다문화청소년이 국제결혼 등을 통해 형성된 다문화가정 내 아버지와 관련된 한국의 지배문화와 어머니 나라의 이질적인 문화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두 문화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를 나타낸다[7], 이러한 이중문화수용의 특수성은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이중언어 습득이라는 강점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학습지체와 문화적 편견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적응을 방해하고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실제 이중문화수용에 대한 스트레스와 이질적인 문화 사이의 충돌, 사회적 소외감 및 차별, 언어발달의 지체로 인한 부모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의 부재 등으로 다문화청소년이 경험하는 우울의 위험성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 이는 곧 이중문화수용태도가 높으면 부모의 양쪽 문화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자아존중감이 증가하고 활발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과 정신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실은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고양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태도를 강화함으로써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시사한다[8].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는 사회환경의 변화는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적응을 돕는 사회복지적 개입이 더 이상 간과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문화적응이론에 의하면 이중문화수용태도는 이주 집단의 고유한 문화에 대한 문화적 유지와 이민사회의 지배문화에 대한 방향성을 의미하는[5] 것으로 청소년의 심리 정서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이질적인 문화에 대한 수용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면 다양한 가치에 대한 인정과 자기 존재에 대한 의미부여도 강화되면서 사회나 학교, 기타 조직에의 적응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당사자들이 겪는 심리적 압박감과 긴장, 부정적인 사회 인식으로 인해 정신건강에 타격을 받게 된다. 다문화청소년이 경험하게 되는 이중문화수용의 부적응은 심리적인 불안감을 조장하여 우울의 위험성을 높인다.

심리적 불안과 정서적 갈등은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사회적 고립감과 소외감, 외로움을 증가시킴으로써[2,3,5,6,9,10] 다문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기의 낮은 이중문화수용태도는 정체감 혼란, 공격성, 불안 등의 부적응 행동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11-13] 있으며, 이중문화수용 부적응 경험은 우울 촉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대외적인 관계 형성을 어렵게 하는 사회적 위축도 조장함으로써 우울의 심각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다문화청소년의 우울을 설명하는 데 있어 이중문화수용태도 뿐 아니라 사회적 위축 역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위축은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환경이나 낯선 사람을 접했을 때 긴장하거나 움츠러드는 반응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14]. 사회적 위축 정도가 높은 청소년들은 타인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며, 과도한 긴장과 사회적 관계 형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스스로를 고립시키거나 불안감을 노출하는 등 다양한 부적응 양상을 보인다[11]. 이러한 사회심리적 부적응은 학교생활 부적응 문제로 귀결되어 사회적 관계의 단절이나 학업중단으로 악화되기도 한다[5,11,12]. 특히, 다른 또래집단과 구별되는 외모에서 비롯되는 차별과 무시, 낙인과 수치심, 문화적 소외감 등은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감을 유발하고[2,12,15], 이로 인해 소외감이나 불안, 두려움 등의 정서적인 혼란이 가중되어 우울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4,16]. 다문화청소년은 이중문화수용이라는 특수한 과업을 요구받고 있으며, 주변 환경의 문화적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스트레스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주변의 시선이나 평가에 따른 사회적 위축에도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12,17], 이를 통해 절망이나 우울, 심리적 갈등의 극단에 이르게 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우울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에서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문화 청소년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이중문화수용태도의 확립과 사회적 위축 경감을 위한 논의와 적극적 개입이 요구된다. 그러나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와 사회적 위축, 우울감의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은 아직 활발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다문화 청소년

의 우울을 예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 태도는 우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은 우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위축은 매개역할을 하는가?

## 2. 연구방법

### 2.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우울감을 설명하기 위해 이중문화수용 태도와 사회적 위축의 영향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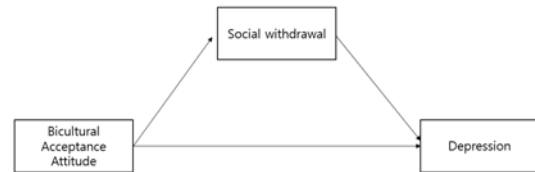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 2.2 자료수집방법 및 연구대상

본 연구의 분석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8년에 조사한 다문화청소년 패널(MAPS) 8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는 2011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발달과정을 종단적으로 추적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는 조사로 개인 내적 및 환경적 변수 등을 포함하고 있는 조사 자료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조사에 응답한 2018년 기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며 어머니가 외국인인 다문화 청소년 1,158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성별은 ‘남학생’ 569명(49.1%), ‘여학생’ 589명(50.9%)으로 구성되었다. 경제 수준은 ‘어렵다’ 594명(52.2%), ‘보통이다’ 519명(45.6%), ‘잘 산다’ 25명(2.2%), ‘무응답’ 20명(1.7%) 순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출신국가는 ‘중국(한족, 기타민족)’ 84명(7.3%), ‘중국(조선족)’ 211명(18.2%), ‘베트남’ 25명(2.2%), ‘필리핀’ 311명(26.9%), ‘일본’ 418명(36.1%), ‘태국’ 49명(4.2%), ‘기타’ 60명(5.2%)으로 나타났다. 국적에 대한 본인의 인식은 대부분

‘한국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으며(840명, 72.5%), ‘외국인(기타 등)’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27.5%(318명)를 차지하였다. 주관적 성적만족도는 ‘불만족’ 726명(62.7%), ‘만족’ 432명(37.3%)순으로 나타나 상당수의 학생들이 자신의 성적에 만족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2.3 측정 도구

### 2.3.1 종속변수: 우울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인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Kim et al.[18]이 개발한 간이정신진단검사 측정 문항을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에서 사용한 측정 문항들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울 척도는 총 10개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 Likert 4점 척도로 설계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울감 척도의 Chronbach’s  $\alpha$  값은 .912로 높게 나타났다.

### 2.3.2 독립변수: 이중문화수용태도

이중문화수용태도 측정은 Noh & Hong[7]이 개발한 척도를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에서 사용한 측정 문항들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중문화수용태도 척도는 한국 문화와 어머니 나라 문화에 대한 수용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의 응답범주는 Likert 4점 척도로 설계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이중문화에 대한 수용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중문화수용태도 척도의 Chronbach’s  $\alpha$  값은 .802로 나타났다.

### 2.3.3 매개변수: 사회적 위축

사회적 위축 척도는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에서 사용한 측정 문항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측정하는 사회적 위축은 총 5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모든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설계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낯선 환경이나 사람을 접했을 때 느끼는 긴장감과 사회적 위축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위축 척도의 Chronbach’s  $\alpha$  값은 .910로 나타났다.

## 2.4 자료분석방법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와 우울의 영향관계 및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통계프로그램 SPSS 23.0과 Process Macro Model을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은 첫째, 이중문화수용 태도, 우울, 사회적

위축의 평균값과 정규성 검증을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의 우울을 설명하기 위한 변수 사이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19]가 개발한 Process Macro Model Number 4를 적용하였다. 매개효과 분석방법은 다양하지만 특별히 Process Macro 방법을 활용한 이유는 2개 이상의 매개변인을 갖고 있는 모델을 검증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Model Number 4는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모형으로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인 이중문화수용 태도가 매개변수인 사회적 위축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는 회귀모형과 종속변수인 우울에 대한 이중문화수용 태도와 사회적 위축변수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회귀모형으로 이루어져 분석되었다[19]. 넷째, 간접효과와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 기법을 활용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기술통계 분석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 태도와 사회적 위축, 우울의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먼저, 이중문화수용의 평균값은 2.87, 표준편차는 .46, 사회적 위축의 평균값은 2.40, 표준편차는 .73, 우울의 평균값은 1.79, 표준편차는 .5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대상자인 다문화청소년들의 이중문화 수용도는 보통 수준, 사회적 위축은 보통 수준, 우울은 보통 수준에서 다소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측정 변수들의 정규성 확보를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각각의 절대값이 3과 10을 넘지 않아 정규성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Variable	Min	Max	Mean	S.D	Skew	Kurt
①	1.00	4.00	2.87	.46	.11	.58
②	1.00	4.00	2.40	.73	-.24	-.45
③	1.00	4.00	1.79	.57	.29	-.35

①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② Social Withdrawal

③ Depression

### 3.2 상관관계 분석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와 사회적 위축, 우울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Variable	Correlation			
	①	②	③	④
①	1			
②	-.10**	1		
③	-.21**	.49**	1	

\*p<.05, \*\*p<.01 ①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② Social Withdrawal ③ Depression

분석결과, 이중문화수용태도는 사회적 위축( $r=-.10$ ,  $p<.01$ ) 및 우울( $r=-.21$ ,  $p<.01$ )과 부(-)적인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위축은 우울( $r=.49$ ,  $p<.01$ )과 정(+)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모든 변수 간 상관관계수가 .7을 초과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 3.3 매개효과 검증

#### 3.3.1 매개효과 검증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 태도와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Hayes[19]가 제안한 Process Macro Model Number 4를 적용하였고,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다.

먼저, Model 1에서 독립변수인 이중문화수용 태도와 매개변수인 사회적 위축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중문화수용 태도는 사회적 위축( $B=-.17$ ,  $\beta=-.10$ ,  $p<.001$ ,  $LLCI=-.27$ ,  $ULCI=-.07$ )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문화수용을 적극적으로 잘할수록 다문화청소년이 느끼는 사회적 위축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Model 2에서 독립변수인 이중문화수용 태도는 종속변수인 우울( $B=-.29$ ,  $\beta=-.21$ ,  $p<.001$ ,  $LLCI=-.36$ ,  $ULCI=-.21$ )에도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다문화청소년이 부모의 양쪽 문화를 수용하려는 태도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Model 3에서 독립변수인 이중문화수용 태도는 종속변수인 우울( $B=-.22$ ,  $\beta=-.16$ ,  $p<.001$ ,  $LLCI=-.29$ ,  $ULCI=-.16$ )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됐고, 매개변수인 사회적 위축은 종속변수인 우울( $B=.37$ ,  $\beta=.47$ ,  $p<.001$ ,  $LLCI=.33$ ,  $ULCI=.41$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중문화에 대한 수용태도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감소하지만, 반면에 사회적 소통의 어려움을 많이 느낄수록 우울감이 깊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Model 1에서 Model 3까지의 모든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고, Model 2에서 우울에 대한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영향력은 매개변수인 사회적 위축이 함께 투입된 Model 3에서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위축은 이중문화수용태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이 확인됐다.

**Table 3. Mediated effect**

Variable	B	$\beta$	LLCI	ULCI	F
Model 1 ① →②	-.17	-.10***	-.27	-.07	10.90
Model 2 ① →③	-.29	-.21***	-.36	-.21	53.23
Model 3 ①,② →③	-.22 .37	-.16*** .47***	-.29 .33	-.16 .41	208.00

\*p<.05, \*\*p<.01, \*\*\*p<.001, ①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② Social Withdrawal, ③ Depression

#### 3.3.2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사회적 위축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 기법을 활용하였고,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 분석결과, 사회적 위축이 이중문화수용태도와 우울의 관계에서 미치는 간접효과는 95% 신뢰구간의 값이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간접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B=-.05$ ,  $Boot SE=.02$ ,  $Boot LLCI=-.08$ ~ $Boot ULCI=-.01$ ).

**Table 4. Bootstrapping**

Path	Effec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①→②→③	-.05	.02	-.08	-.01

\*p<.05, \*\*p<.01, \*\*\*p<.001, ①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② Social Withdrawal, ③ Depression

## 4. 결론: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우울과 관련하여 이중문화수용 태도와 사회적 위축이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19]의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부분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 기법을 활용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긍정적인 이중문화수용태도는 우울감을 낮추는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이중문화수용 태도가 높을수록 우울감을 감소시킨다는 선행 연구결과[3,5,9,20]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

구결과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이중문화수용태도는 다문화청소년의 우울을 감소시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공적 적응에 일조하는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 정체성 형성으로 인한 심리정서적 불안[21]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복지의 실천적 개입이 요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이중문화수용태도는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을 약화시키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중문화수용 태도가 높으면 사회적 위축감이 낮아진다는 선행연구[11,20]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다문화청소년들이 부모의 이중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포용적으로 이해할수록 새로운 환경이나 낯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긴장과 불편함을 보다 쉽게 해소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셋째, 이중문화수용태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위축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문화에 대한 적극적 수용태도의 부족은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불안감을 느끼거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배가할 수 있고, 높아진 사회적 위축은 다시 우울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는 사회적 소외감이나 차별, 편견 등의 부정적 경험이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고통을 유발하고 우울과 같은 부적응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6,11,14] 결과와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들은 다문화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돕고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사회적인 위축감을 극복하고 자신감과 원활한 상호소통을 형성할 수 있는 다각적인 교육과 심리 상담 등의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를 수용하는 데 있어 소극적인 태도와 이해의 부족은 사회적 위축을 조장하여 우울 경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실천적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중문화수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모색해야 한다. 기존에 진행되었던 비다문화청소년 중심의 문화활동을 보완하여 다문화청소년과 비다문화청소년이 함께하는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올바른 문화수용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교육과 제도의 지원 및 다양한 프로그램의 실행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원방안을 통해 다문화청소년과 비다문화청소년의 친밀감이

형성되어 화합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과정에서 다문화청소년은 부모 양쪽의 문화를 스스럼없이 수용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자긍심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의 우울 해소를 위해 가정과 교육기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청소년에 우호적인 사회환경을 만드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다문화 가정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그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의 증가현상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현실을 반영하여 다문화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한 교육환경 및 전반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과업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인권과 존재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청소년 친화적인 사회환경과 가정환경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교육이나 진로 등을 지도하고 상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우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는 제도 마련이 요청된다. 나아가 다문화청소년의 부모문화 수용을 위한 ‘문화체험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부모의 문화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이중문화 수용에 대한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별히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진행되는 국·영·수 수업의 입시위주 중심에서 벗어나 다문화에 대한 체험활동 시간을 증가시켜 이중문화 수용에 따른 우울의 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개선도 요구된다.

셋째,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을 완화시키는 학교 내 교육과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배제나 편견에서 벗어나 이들이 사회활동에 보다 잘 적응하고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과 프로그램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소년은 자기정체성의 확립뿐 아니라 진학과 진로의 선택까지 고민하는 시기에 위치하고 있어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과 인정, 협동을 통해 소외감과 고립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이들의 우울이나 정신건강, 삶의 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 주목하여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직접효과 및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적인 건강을 함양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그럼에도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어 보다 성숙한 논의를 위해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첫

째, 본 연구는 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고등학교 2학년 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청소년으로 확장해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또한 다문화청소년 집단도 이주노동자 자녀, 중도입국 청소년, 국제결혼 자녀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제결혼 자녀에 초점을 맞춘 본 연구결과와 의미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또한 패널 자료 구성에 따른 변수의 제약으로 인해 다문화청소년의 우울을 보다 총체적으로 심도있게 분석하기 어려웠다는 한계를 보인다.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비다문화청소년보다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훨씬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가족관계나 환경요인을 포함하는 다양한 변수와 우울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동시에 간접적인 영향 관계를 포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논의의 확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청소년기의 우울이나 이중문화수용태도, 사회적 위축 등의 태도는 불변의 특성이 아니라 교육이나 환경 등에 따라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장시간에 걸쳐 어떠한 변화의 궤적을 보이는가에 대한 종단적 분석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장기 연구작업을 통해 다문화청소년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긴장, 불안 등의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REFERENCES

- [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21). *2022 Youth Statistics*. DSIM(Online).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
- [2] S. H. Cho & S. Y. Park. (2020). Mediating Effect of Social Withdrawal on the Adolescent's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and Depression in Multicultural Families.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 Environment*, 18(2), 81-92. <http://lps3.www.earticle.net.libproxy.hansei.ac.kr/Article/A376518>
- [3] S. H. Oh. (2016). The Study on the Eco-systemic Variables Affecting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Depression.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56, 1-27. DOI : 10.15300/jcw.2016.56.1.1
- [4] A. L. Whaley & K. Francis. (2006). Behavioral Health in Multiracial Adolescents: The Role of Hispanic/Latino Ethnicity. *Public Health Reports*, 121(2), 169-174.
- [5] W. K. Lee., H. E. Yu & C. H. Lee. (2019).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Delinquency of Multi-cultural Juvenile. *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 21(1), 65-90. DOI : 10.24055/kaps.21.1.3
- [6] J. E. Chun & J. S. Park. (2021). S. J. Kim & C. H. Hong. (2017).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 and External Resources,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 of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Association on Social Quality*, 5(2), 1-29. DOI : 10.29398/KJSQ.2021.5.2.1
- [7] C. R. Nho & J. J. Hong. (2006). Adaptation of Migrant Workers' Children to Korean Society: Adaptation of Mongolian Migrant Worker's Children in Seoul, Gyeonggi A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0(22), 127-159. UCI : <http://uci.or.kr/G704-000946.2006..22.005>
- [8] Y. A. Ah & M. S. Jeon. (2017). The Effect of Multi-Cultural Adolescent School Exclusion on Depression: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Capital within the Family and Community Support.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38, 125-147. DOI : 10.14816/sky.2021.32.1.57
- [9] J. S. Lee & J. M. Kim. (2021). The Effect of Acculturative Stress of Par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on Youth Children's Depression: The Controlled Mediated Effect of National Identity and Peer Relationship Through Social Inhibitions.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28(2), 59-88. DOI : 10.21509/KJYS.2021.02.28.2.59
- [10] S. E. Lee. (2021). A Study of Longitudinal Changes and Relevant Factor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ttitudes Amongst Multiethnic Adolescents. *Studies on Korean Youth*, 9(1), 179-208. DOI : 10.14816/sky.2018.29.1.179
- [11] Y. J. Kim & J. H. Lee. (2022). The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ocial Withdrawa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Adolescents'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and School Adaptat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2(1), 131-142. DOI : 10.22251/jlcci.2022.22.1.131
- [12] S. H. Ju., I. K. Oh & S. I. Ahn. (2021). The Study of the Relationship Motivaton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Mediating Effect of Social Withdrawal,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2(3), 957-972. DOI : 10.22143/HSS21.12.3.6
- [13] J. M. Jung & D. H. Lee. (2021).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Social Withdrawal among Multicultural Youth in Korea: Identifying Latent Classes and Testing the Impact of Both Neglectful Parenting and Supportive Friendships. *Korea Citation Index*, 32(1), 57-85.

DOI : 10.14816/sky.2021.32.1.57

- [14] S. H. Mo. (2018). Influences of Acculturation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Social Withdrawal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Moderating Effects of Teacher and Peer-Friend Factors. *Research Center For Ko.rean Youth Culture*, 54, 67-93.  
DOI : 10.17854/ffyc.2018.04.54.67
- [15] Y. A. Jung. (2011). A Study on the Education Model for Information Literacy Improvement fo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1), 15-20.  
DOI : 10.15207/JKCS.2011.2.1.015
- [16] Y. J. Hal & E. A. Kim. (2019). Convergence Effect of Horticulture Activity Program on Self-esteem and School Life Adapta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6), 409-416.  
DOI : 10.14400/JDC.2019.17.6.409
- [17] M. S. Lee & S. C. Park. (2021). The Effect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School Life Satisfaction on Career Attitudes: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with Drawal.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3(2), 829-843.  
DOI : 10.37727/jkdas.2021.23.2.829
- [18] G. I. Kim., J. H. Kim & H. T. Won. (1984). Symptom Checklist-90-Revision - Somatization :SCL-90-R-SOM: Central Integrity Research Institute.
- [19] A. F. Hayes.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Journal of Educational Measurement*, 51(3), 335-337. DOI : 10.1111/jedm.12050
- [20] S. J. Kim & C. H. Hong. (2017). The Effect of Discrimination Experience and Language Problems on Psycho-social Adjustment in Children with Multi-cultural Family: The Moder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and Family Strength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4(1), 195-211.  
DOI : 10.21509/KJYS.2017.01.24.1.195

- [21] K. W. Oh. (2011).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Their Acceptance of Korean Culture and Adaption to Korean School Lif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9(9), 83-97.  
DOI : 10.6115/khea.2011.49.9.083

유혜영(Hyeyoung Yu)

[정회원]



- 2018년 2월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 대학원 사회복지학(석사)
- 2020년 3월~ 현재 : 한세대학교 일 반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 관심분야 : 다문화, 여성, 가족, 노인
- E-Mail : water3000@naver.com

백진아(Jina Paik)

[정회원]



- 1982년 2월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문학사)
- 1984년 8월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사회학석사)
- 1995년 8월 : University of Notre Dame(사회학박사)

- 2006년 3월~현재 : 한세대학교 간호복지학부 사회복지학 과교수
- 관심분야 : 가족, 노동, 여성
- E-Mail : jpaik1@hanafos.com